

간호대학생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of Grit,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이 임 선* Im-Sun Lee¹ (islee6@naver.com) ORCID 번호 00009-0003-2917-1856

¹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Assistant professor, Gimcheon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경상도 G 시에 소재한 1개 대학 간호대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IBM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546, p=.000$), 문제해결능력($r=.632, p=.000$), 학업성취도($r=.606, p=.000$)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능력($r=.626, p=.000$), 학업성취도($r=.683, p=.000$)와 문제해결능력은 학업성취도($r=.614, p=.000$)에 대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 = -.446, p < .001$), 그릿($\beta = .256, p = .003$), 문제해결능력($\beta = .184, p = .04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은 54.8%였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 제 어: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

Key words: Grit, Academic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I. 서론

1. 연구 배경

대학 교육 현장은 학습자 중심의 참여 학습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15],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학습자 개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16].

학업성취도는 학업 성적이나 학습을 통하여 얻은 능력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업 달성에 대한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하여 자존감과 졸업 후 전공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7].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국가고시 및 취업 준비 등 여러 가지 학업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타 학과 학생보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따라서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적응 문제와 과중한 학습 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성취 달성을 위해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1].

그릿이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학업 적응과 학업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5,19,20],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장기적인 과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며, 좌절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왔다[5]. 최근 연구에서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타고난 재능보다 그 이상의 것에 도전과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의 비인지적인 특징으로 그릿이 강조되며 주목받고 있으며[22],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2,23]. 또한 그릿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과 동시에[21,24]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지속시키고, 개인에게 심리적 동기부여를 통하여 학업과 성공적 과업을 위한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26].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업적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25].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27],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아져 학업적 수행 및 성취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5,27-28]. 또한 개인의 다양한 성공 경험 혹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경우 얼마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해 예측하고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위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31].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격적 특질인 그릿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5], 그릿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29-30].

한편 문제해결능력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해야 할 학습성과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32]. 문제해결능력은 문제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할 목표 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하는 장애물을 해소시키는 활동이다[9]. 따라서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

습 환경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31]. 문제해결을 위한 요소로서 문제해결자의 자기효능감[33]과 내적인 동기[34]가 포함되며, 문제해결능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31].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학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다만 이 세 변수간의 관계를 통합으로 하여 학업성취도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도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3, 4학년 중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임의 표출하였다. 설문 당시 간호학과 휴학생,

군입대자 및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8개로 하였을 때, 109명이 산출되어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131명에게 설문 조사하였고, 불완전한 답변을 제외한 110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적정수준으로 판단되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년, 성별,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 학점,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2) 그릿

그릿 측정도구는 Duckworth & Quinn[5]이 개발한 도구를 송효숙·임소희[6]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6문항으로 흥미유지(3문항), 노력지속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Duckworth & Quinn[5]이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73-.79$ 였고, 송효숙·임소희[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7$, 하위영역별 노력지속 .77, 흥미유지 .69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1$, 노력지속 .72, 흥미유지 .83이었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Ayres[7]가 개발하고, 박신영·권영란[8]이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변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Ayres[7]이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4$ 였고, 박신영·권영란[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이석재 등[9]이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도구 중에서 대학생 문제해결능력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45문항으로 1점(매우 드물게)에서 5점(매우 자주)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석재 등[9]이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4$, 배한주·김현아[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2$ 였다.

5)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Rovai 등[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한 자가보고형식의 인지학습척도(CAP)를 박

진희 등[11]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9문항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박진희 등[11]이 번안 당시 Cronbach's $\alpha = .90$, 김성준[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9$ 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4년 4월 03일부터 4월 17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학과 게시판 및 온라인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부착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나누어 준 후 수거하였다. 설문 응답에 요구되는 시간은 평균 10분이었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 전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가 성적이나 수업과 무관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동안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하여 관리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예정이며, 보관 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서류는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전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대상자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3)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 정도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이 78명(70.9%), 연령은 23세 미만이 72명(65.5%)으로, 평균 연령

은 22.6 ± 3.90 세였다. 학년은 4학년이 65명(59.1%), 평균학점은 ‘3.5~3.9’ 60명(54.1%), ‘3.5미만’ 29명(26.4%), ‘4.0이상’ 21명(19.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63명(57.3%), ‘보통’ 42명(38.2%), ‘불만족’ 5명(4.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3.74 \pm .56$ 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7점 만점에 $5.89 \pm .81$ 점,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3.80 \pm .50$ 점, 학업성취도는 $3.75 \pm .58$ 점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pm SD
Gender	Male	32 (29.1)	
	Female	78 (70.9)	
Age	<23	72 (65.5)	22.6 ± 3.90
	≥ 23	38 (34.5)	
Grade	3rd	45 (40.9)	
	4th	65 (59.1)	
Grade Point Average	$\sim < 3.5$	29 (26.4)	
	$\geq 3.5 \sim < 4.0$	60 (54.1)	
	$\sim \geq 4.0$	21 (19.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63 (57.3)	
	Moderate	42 (38.2)	
	Unsatisfied	5 (4.5)	

<Table 2> Grit, Academic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n=110)

Variables	Mean \pm SD	Min	Max
Grit	$3.74 \pm .56$	3.00	5.00
Academic Self-Efficacy	$5.89 \pm .81$	3.40	7.00
Problem Solving Ability	$3.80 \pm .50$	2.16	5.00
Academic Achievement	$3.75 \pm .58$	2.44	5.0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은 평균학점($F=9.20$, $p=.000$),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F=3.58$, $p=.03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학점($F=4.12$,

$p=.019$),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F=14.11$,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문제해결 능력은 학년($t=-2.02$, $p=.046$), 평균학점($F=7.32$, $p=.001$),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F=3.89$, $p=.023$)에서, 학업성취도는 성별($t=2.99$, $p=.033$), 학년($t=-2.14$, $p=.035$), 평균학점($F=8.90$, $p=.000$),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F=14.76$,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é test 결과, 그릿과 학업적 효능감은 평균학점 및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은 학년, 평균학점 및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학년과 평균학점 및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Grit, Academic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rit		Academic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Gender	Male	32 (29.1)	3.84±.68	1.10 (.276)	5.84±.95	-.40 (.693)	3.86±.52	.80 (.424)	4.00±.61	2.99 (.003)**
	Female	78 (70.9)	3.70±.51		5.91±.75		3.78±.50		3.65±.54	
Age	<23	72 (65.5)	3.78±.56	.98 (.328)	5.89±.71	-.04 (.970)	3.78±.52	-.37 (.710)	3.71±.55	-1.16 (.249)
	≥23	38 (34.5)	3.67±.58		5.89±.99		3.82±.47		3.84±.63	
Grade	3rd	45 (40.9)	3.75±.50	.19 (.848)	5.70±.76	-1.98 (.051)	3.69±.50	-2.02 (.046)*	3.61±.56	-2.14 (.035)*
	4th	65 (59.1)	3.73±.61		6.01±.83		3.88±.49		3.84±.57	
Grade point average	<3.5 ^a	29 (26.4)	3.48±.39	9.20 (.000)***	5.72±.60	4.12 (.019)*	3.66±.42	7.32 (.001)**	3.45±.47	8.90 (.000)***
	≥3.5-<4.0 ^b	60 (54.1)	3.72±.54		5.81±.90		3.74±.49		3.78±.58	
	≥4.0 ^c	21 (19.1)	4.13±.64		6.32±.66		4.15±.50		4.10±.53	
Major satisfaction	Unsatisfied ^a	5 (4.5)	3.50±.51	3.58 (.031)*	5.84±.81	14.11 (.000)***	3.47±.32	3.89 (.023)*	3.40±.38	14.76 (.000)***
	Moderate ^b	42 (38.2)	3.59±.45		5.43±.60		3.68±.42		3.45±.44	
	Satisfied ^c	63 (57.3)	3.86±.61		6.20±.81		3.90±.54		3.98±.57	

3.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 상관관계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546$, $p=.000$), 문제해결능력($r=.632$, $p=.000$), 학업성취도($r=.606$, $p=.000$)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능력($r=.626$, $p=.000$), 학업성취도($r=.683$, $p=.000$)와 문제해결능력은 학업성취도($r=.614$, $p=.000$)에 대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t (n=110)

Variables	Grit	Academic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Grit	1			
Academic Self-Efficacy	.546(.000)***	1		
Problem Solving Ability	.632(.000)***	.626(.000)***	1	
Academic Achievement	.606(.000)***	.683(.000)***	.614(.000)***	1

*p<.05, **p<.01, ***p<.001

4.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변수인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오차의 독립성 검증에서 Durbin-Watson 통계량이 1.691로 자기 상관이 없고, 공차 한계가 .488~.571로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도 1.752~2.049로 10을 넘지 않아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인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beta = -.446$, $p < .001$), 그릿 ($\beta = .256$, $p = .003$), 문제해결능력 ($\beta = .184$, $p = .049$)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54.8%로 나타났다($F = 45.124$, $p < .001$)<Table 5>.

<Table 5>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110)

Characteristics	Academic Achievement				
	B	SE	β	t	P
(Constant)	.165	.315		.526	.600
Grit	.263	.088	.256	2.989	.003
Academic Self-Efficacy	.306	.061	.428	5.027	.000
Problem Solving Ability	.212	.106	.184	1.995	.049

R²=.749, Adj.R²=.548, F=45.124, p<.001***

Ⅳ.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성취도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 상관성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문제해결능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54.8%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그릿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허성수(2023).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Vol.17, No.8, 343-352.
[2]	신은희(2020).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우울, 불안 및 그릿과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Vol.33, No.3, 156-163.
[3]	김영선, 이영주(2021).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1(1), pp.531-541.
[4]	정미라, 정은(2018).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6, pp.414-423.
[5]	Duckworth, A. L., & Quinn, P. D.(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91, No.2, pp.166-174.
[6]	송효숙, 임소희(2020). 한국어판 간호대학생의 그릿 측정도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26, No.3, pp.322-331.
[7]	Ayres, H. W. (2005).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USA.
[8]	박신영, 권영란(2012). 표준화 환자를 적용한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교육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Vol.21, No.1, pp.79-88.
[9]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RR2003-15-03). 한국교육개발원, pp.1-145.
[10]	배한주, 김연하(2023). 간호대학생의 눈치와 그릿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9, pp.99-106.
[11]	박진희, 이은하, 배선행(2010). 간호대학생에서 e-러닝의 학업성취도 영향요인-웹기반 건강사정 전자교과서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Vol.40, No. 2, pp.182-190.
[12]	Rovai, A. P., Wighting, M. J., Baker, J. D., & Grooms, L. D. (2009).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perceived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learning in traditional and virtual classroom higher education settings.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 Vol.12, No.1, pp.7-13.
[13]	김성준(2024). 블렌디드 러닝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셀프리더십이 학업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박진희, 이은하, 배선행(2010). 간호대학생에서 e-러닝의 학업성취도 영향요인-웹기반 건강사정 전자교
[15]	길초롱(2020).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디지털 융복합연구, Vol.19, No.12, pp.617-626.
[16]	김민정, 박영민(2021).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태도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습자중심교육과 교육연구, Vol.21, No.6, pp.495-507.
[17]	김원종, 이종근(2022).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에듀테인먼트연구, Vol.4, No.3, pp.67-77.
[18]	홍세화, 김지수, 주도빈(2022).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9, pp.443-450.
[19]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2017). 대학생의 그릿과 자율성, 마인드셋 그리고 학업지속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Vol.24, No.12, pp.45-69.
[20]	권정희, 정미예(2019). 대학생의 행복추구경향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Vol.26, No.9, pp.345-369.
[21]	Chemers, M. M., Hu, L.-t.,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 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3, No.1, pp. 55-64.
[22]	신효정, 이문희(2014). 애착외상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와 또래애착의 조절 효과. 청소년학연구, Vol.21, No.1, pp.291-312,
[23]	정미라, 정은(2018).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6, pp.414-423.
[24]	Pajares, F. (1996).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66, No.4, pp.543-578, 1996.
[25]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26]	김은임(2020). 청소년의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1, No.1, pp.665-674.
[27]	박현정, 오재우(20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간호 전문직관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Vol.21, No.5, pp.489-500.
[28]	최현주(2017).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조절 및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6, pp.68-77.
[29]	이서정, 신태섭(2018). 고등학생의 마인드셋이 그릿을 매개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수학 포기 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아시아교육연구, Vol.19, No.1, pp.59-87.
[30]	한상춘(2017). 대학생의 그릿(Grit)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심미정, 오효숙(2012).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6, pp.328-337.
[32]	김미옥, 남현아, 이애영(2019).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과정의 임상의 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5, pp.877-889.
[33]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34]	Amabile, T. M. (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New York, Springer-verlag.